

2016.6.18. 시행 교육행정직 9급 국어 시험 정답 및 해설

1	④	2	③	3	④	4	③	5	④
6	①	7	②	8	③	9	②	10	①
11	①	12	②	13	②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③	19	④	20	③

1. [문법/형태론/품사] 난이도 下
보조 용언의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보조 용언의 품사는 본용언의 품사와 동일하지 않다. 현재형 ‘-는다/는다’의 형태로 구별하자.
④ 묻지 않고 : 묻지 않는다(보조 동사)
[오답풀이]
① 믿을 만한 : 믿을 만하다(보조 형용사)
③ 볼까 싫어 : 볼까 싫다(보조 형용사)
④ 많기는 하지만 : 많기는 하다(보조 형용사)
2.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준말] 난이도 下
‘보기’의 ㉠ ‘오래’는 ‘오라고 해’의 준말이다.
③ 돌아가자 : ‘돌아가자고 해’의 준말이다.
[오답풀이]
① 갈래? : 갈까? ‘-르래’는 반말체에 쓰이는, 상대방 의사를 묻는 종결 어미
② 덩대? : 더워? ‘-대’는 반말체에 쓰이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④ 재미없대 : 재미없어. ‘대’는 반말체에 쓰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는 종결 어미
3.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난이도 下
ㄴ. 통틀어(○) - 기본형은 ‘통틀다’
ㄷ. 잠가(○) - 기본형은 ‘잠그다’(으 탈락 동사)
[오답풀이]
ㄱ. 오실런지요(×) → 오실는지요(○)
ㄷ. 예/아니오(×) → 예/아니요(○) ‘아니요’는 감탄사.
4. [어문 규정/표준 발음법] 난이도 下
③ 읽는다[일는다](×) → [일른다](○) ‘ㅎ’ 탈락 / 유음화
[오답풀이]
① 마음의[마으미][마으메] -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할 수 있다.
② 스쳐[스처] - 용언의 활용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저, 켜, 처]로 발음한다.
④ 되어[되어/되여/뒀어/뒀여] - ㅅ모음순행동화, ‘ㅂ’[ㅂ/뒀] 허용
5.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난이도 中
④ 가. ‘커녕’은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다. ‘노래는 잘 부르는데’ - ‘-는데’는 설명의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라. “사람 살려.” 하고 - ‘하고’는 동사이므로 띄어 쓴다. / ‘라고’의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풀이]
나. ㉠의 경우는 붙여 쓴다. 그러나 ‘김 씨가 왔다.’의 경우에는 호칭 어 ‘씨’를 띄어 쓴다.
6. [문법/문법 요소/사동문, 부정문] 난이도 下
① (가) 형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 형이 직접 동생에게 먹여 주었다. / 동생이 먹도록 형이 시켰다
(나) 형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 동생이 먹도록 형이 시켰다.
(다) 영호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다. - 단순 부정 / 의지 부정
(라) 영호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다. - 능력 부정

7.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난이도 中
㉠ 있다가 ㉡ 이따가 ㉢ 이따가
㉣ 있다가 ㉤ 이따가 ㉥ 있다가
② ㉠, ㉢, ㉥ 있다가
8. [문법/음운 변동] 난이도 下
③ ㄱ. 첨가 : 식용유[시공뉴] ㄴ. 축약 : 이기어 → 이겨
ㄷ. 동화 : 국민[궁민]
[오답풀이]
① 안방[안빵] : 교체 / 보아 → 봐 : 축약 / 더럽다[더럽따] : 교체
② 금융[금능] : 첨가 / 좋은[조은] : 탈락 / 해돋이[해도지] : 교체
④ 오리알[오리알] : (표준 발음이 아님) / 살+으니 → 사니 : 탈락
감기[강기] : (표준 발음이 아님)
9. [어문 규정/외래어 표기법] 난이도 中
② 팸플릿, 스케일링(○)
[오답풀이]
ㄱ. 카탈로그(×) → 카탈로그(○)
ㄷ. 배드민트(×) → 배드민턴(○)
ㄷ. 레크레이션(×) → 레크리에이션(○)
ㄹ. 렌트카(×) → 렌터카(○)
10.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난이도 中
① 어떡해(○) - ‘어떻게 해’의 준말
[오답풀이]
② 셋방(○) / 전셋방(×) → 전세방(○) : 3음절 한자어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다.
③ 어렵살이(×) → 어렵사리(○) : 매우 어렵게 (부사)
④ 만듬으로써(×) → 만듬으로써(○) / ‘살다. 알다, 열다, 베풀다, 만듦’ 등의 단어의 명사형은 ‘삶, 앎, 열, 베풀, 만듦’이다.
11. [독해/추리적 사고] 난이도 中
주어진 지문은 3문단으로 나뉜다. 1문단 : 보유 효과의 뜻 / 2문단 : 탈리의 실험. 보유 효과의 작용. / 3문단 : 존스의 실험. 침팬지에게도 보유 효과가 있음.
① 보유 효과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성향을 뜻한다. 따라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가 아니라 ‘내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해야 한다.
12. [독해/문단의 구조] 난이도 下
(가) 집단 구성의 주요 요소로는 ‘규범, 역할, 지위’가 있다.
(나) 규범의 의미 - (다) 사이먼의 ‘규범’ 연구
(라) ‘역할’의 의미
(마) ‘지위’의 의미
그러므로 ②가 적절한 구조 분석이다.
13. [독해/내용 일치] 난이도 中
② 규범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과 기대를 말한다.
[오답풀이]
① 아동 집단의 사회적 구조는 집단의 내부에서 형성된다.
③ 역할은 공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기도 한다.
④ 집단 내의 지위에 부여되는 권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
14. [화법/간접 공손화법] 난이도 中
② ㄱ. ㄷ 이 공무원이 선택한 화법에 알맞다.
[오답풀이]
ㄴ. 발화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발화 기능은 명령이다.
ㄷ.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 표현에 해당한다.

15. [문학/고려가요/도이장가] 난이도 中

③ 팔관회 기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풀이]

- ① 신승점, 김낙이 ‘임’을 위해 목숨을 던졌으니, ‘임’은 태조 왕건이다.
- ② 도이장가는 공신에 대한 예종의 평가에 해당한다.
- ④ 두 배우의 연행을 보고 시를 짓게 되었다.

16. [문학/고대소설] 난이도 中上

④ 이 소설은 다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법에 앞서는 인륜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동생이 포상금 때문에 형수를 고발하지만 이 소설에서 다루려는 주된 내용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다모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상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모이다. 다모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주인 여자의 딱한 사정에 감동하여 오히려 그것을 고발한 시동생을 꾸짖는다.
- ② 다모를 주인공으로 한 ‘다모전’이다. 다모는 관아에 소속된 여자포졸로 지위가 낮았으며 오늘의 여정에 해당한다. 아전에게 딸린 하인인 이예가 다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부 앞에 나가 아뢴다는 대목을 보면 다모의 신분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17. [문학/고대소설] 난이도 下

① 법을 집행하는 주부는 다모를 벌하나 비밀히 불러 상을 내린다. 이를 보아 공사 분별이 철저한 목민관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젊은 생원은 포상금이 탐이 나 형수를 고발한 패륜적 인물이다.
- ③ 다모는 인륜을 중시하여 법 집행을 어긴다.
- ④ 남편을 위해 술을 빚은 주인 여자는 선량한 여인이다.

18. [문학/현대시] 난이도 中

③ ㉠은 현대문명의 폐해로 인해 인간이 황폐화되는 것을 절망적으로 노래한 시구이다.

[오답풀이]

- 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성 눈을 썩은 구름들이 뿌린다.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란 표현은 밝고 활기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 우울하면서 냉소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 ② 이제 눈은 아름답지 않다. 인간은 아름다운 자연마저 파괴했다. 이 구절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산성 눈의 실체를 표현한다.
- ④ 하늘이 무너져 인간의 죄악을 눈으로 뿌린다. 이제 자연은 인간의 배신을 알기에 아예 외면해 버린다. 인간의 조급함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19. [문학/현대시] 난이도 上

‘함축적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출제이다. ‘산성 눈’은 인간의 문명이 만든 결과물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한다. 문명의 발달이 눈마저 오염시켜 하늘을 무너지게 하는 재앙을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고발적인 소재와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중금속 폐기물’이다.

‘산성 눈’은 대기 오염의 결과물이다. ‘산성 눈’은 내린다. 바퀴벌레들은 철판을 먹어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한다. 따라서 ‘내리는 산성 눈’과 ‘배설되는 중금속 폐기물’은 그 이미지와 상징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로봇’은 ‘바퀴벌레’의 비유어이다. 바퀴벌레는 중금속 폐기물을 만드는 주체이지 결과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④가 정답이다.

20. [문학/현대소설] 난이도 中

이태준의 ‘농군’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과 토착민 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 봇도랑 공사를 하려는 조선인과 발농사를 위해서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토착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 대목의 중심 사건이다. 그러므로 ③이 갈등의 핵심이다.

[오답풀이]

- ① 땅의 소유권 분쟁이 아니다.
- ② 오히려 조선인들이 폭력적이다.
- ④ 공사 방식을 두고 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봇도랑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이다.

[총평]

1. 총 5쪽(국가직, 지방직 출제 3쪽)

2. 출제 영역

문법 10문항 / 독해(비문학) 4문항 / 문학 6문항

- 교육행정직 출제는 작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다. 수능 출제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담당하면서 출제 경향도 대폭 바뀌었다. 재래의 공무원 출제 방식이 아니라 수능 식에 가까운 출제 방식이다. 우선 출제 쪽수가 5쪽이고, 문법 대 지문 출제가 10 : 10의 비율이다. 지문도 문학 비중이 무겁다. 국가직, 지방직에서 중시하는 어휘 출제가 없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3. 문법 :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문 규정 등 골고루 출제되었고 그 방식은 수능 식이다. 난이도는 대체로 중, 하에 해당한다.

독해 : 4문항 출제되었으며 수능 형태의 출제이다.

문학 : 고려가요(도이장가), 고대소설(다모전), 현대시, 현대소설 등 다양하게 출제되었으며, 현대시 출제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듯하다.

4. 난이도 上 1 / 中上 1 / 中 10 / 下 8문항

5. 전체적으로 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원 출제 형태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생은 생소하게 느꼈을 것이다.

교육행정직 출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므로 출제 유형에 각별히 유의하여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문법의 통달은 필수 사항이다.